광주 쓰레기 소각장 설명회, 주민들 반발로 무산

부지 유치 신청 반려 촉구하며
삼도동 주민들 설명회장 봉쇄
함평 주민도 반대 동참…설립 난항
시 "다음 일정 검토…최대한 소통"

2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자원회수(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릴 행사장 진입로를 몸으로 막고 있다. 오른쪽은 텅 빈 설명회 행사장. /나명주기자mjna@

"자기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할 것이다.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한다!"

26일 오후 1시께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일대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2시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설명회는 후보지 삼도동 일대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 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본안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다.

하지만 이날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삼도동 주민들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와 인접한 함평 주민 등 100여명은 버스 3대와 트랙터를 몰고 설명회장을 찾아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행정복지센터 진입을 막았다.

주민들은 '함평 인접 삼도동 소각장 결사 반대, 소각장 철회시켜 미래를 지키자' 팻말을 들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차라리 광주시청 앞에다 지어라", "함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라" 는 등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직원과 몸싸움과 실랑이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설명회가 열리는 2층까지 계단을 점거하고 통행을 차단했다. 삼도본량주민, 광주시농민회 삼도지회 농민들 30여명은 계단마다 4명씩 자리를 잡고 설명회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했고 다른 주민들도 센터 밖에서 통행로를 막았다.

시 관계자들이 행정복지센터 내부로 출입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아서면서 시 관계자들은 설명회 장소에 진입하지 못했고 결국 설명회는 무산됐다.

광주시농민회 삼도지회 회원인 김은희(여·59)씨는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냄새도 심하고 발암물질도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 농사를 지어 학교 급식에 보내고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우리 삼도동 주민들에게는 생계에 크나큰 치명타"라며 "삼도 농산물은 발암물질이 있다는 오명을 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광산구 삼도동 주민들은 시 관계자들에게 후보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정체불명의 시민들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더라도 별도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려는 것"이라며 "파행됐지만 다음 일정을 검토하고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2022년 소각장 설치계획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광주시는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주도 방식'으로 3차 공모를 진행해 6개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삼도동을 최적지로 확정했고, 이번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실태 어떻길래…'로스쿨 음서제' 말 나오나

이 대통령 우려 언급하면서 주목
2016년 불공정 입시 논란서 촉발
비싼 등록금에 대부분 명문대 출신
전남대 올 126명 중 지역출신 13명
대학 못가면 변호사 불가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음서제'를 우려하는 언급을 하면서 로스쿨 실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의 질문을 받은 뒤 로스쿨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시민이 당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질문 하자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했다"고 발언했다.

음서제는 과거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를 가리키며, 사회 지배 계급이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로스쿨 음서제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6년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자제들 30여명에 대한 로스쿨 불공정 입시 논란이 발생하면서다. 교육부는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6000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 5건을 확인했다. 이 중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는 1건이었다.

논란은 지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사법시험이 '가난한 사람도 공부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개천에서 용 나는' 관문으로 여겨졌던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전국 로스쿨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입학전형에서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 정량요소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개인정보, 가족 정보 등이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조치를 했다.

문제는 이 때문에 학부를 갓 졸업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선발 과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입학생 대다수가 명문대 출신의 어린 학생들로 채워져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대 로스쿨의 경우 2025학년도에 126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은 전남대 10명, 조선대 2명, 광주과학기술원 1명 등 13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고려대 13명, 연세대 11명, 이화여대 12명, 한양대 11명, 성균관대 9명, 서울대 7명, 경희대 6명 등 '명문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합격자들의 나이 또한 20대가 105명으로 81.0%를 차지했고, 30대는 24명으로 19.0%에 불과했다.

다른 대학원에 비해 비싼 등록금도 '금수저' 논쟁을 불러왔다.

전남대 로스쿨의 경우 국립대인 점을 감안해도 다른 대학원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남대의 2025학년도 학기당 평균 등록금은 554만 4200원으로, 전국 대학원의 전국 평균 등록금 422만 9870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립대는 훨씬 높다. 연세대(1018만원), 고려대(975만원), 성균관대(924만 6500원) 등 수도권의 로스쿨은 전남대의 두 배에 가까운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리 1호기 해체…한빛원전 수명 연장 여부 주목

원자력안전위 의결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최종 승인됐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한빛원전 1호기와 내년 9월로 계획된 2호기 수명 연장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1년 해체 승인을 신청한 지 4년 만으로,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가 난지 53년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에 돌입하게 됐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한빛원전 1·2호기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서(허가서)를 지난해 12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로, 허가 연장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반면, 광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철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절반이 만 13세 미만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이 만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성폭력 의료·법률 및 심리치료 통계를 공개했다.

센터는 지난 20년간 총 3523명의 피해자 의료지원, 상담 및 법적지원, 심리지원, 동행지원 등 총 11만6037건의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중 만13세 미만 피해자는 1947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5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만 13세 미만의 가해자 비율도 지난 2005~2019년 13.9%만을 차지했던 데 비해 2020~2024년 17.8%로 늘어났다.

센터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접근 연령이 낮아지고, 왜곡된 성적 콘텐츠에 조기 노출되는 환경 등에 의해 저연령층 가해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7년(2018~2024년) 사이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미디어 매체 유인을 통한 피해 사례 비율은 25.4%를 차지했다. 미디어 매체 유형으로는 채팅앱이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